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 16.(화) 06:00 < 1.16.(화) 석간 > 배포 2024. 1. 15.(월)

엔지니어링업계, 협회출범 50주년 맞아 도약 다짐

- 2024년 엔지니어링 신년인사회 개최, 주요인사 150명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월 16일(화) 서울 삼정호텔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이하 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회장, 엔지니어링업계 대표 등 주요 인사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엔지니어링 신년인사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올해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舊 기술용역육성법, 1973년 제정)에 근거하여 엔지니어링협회가 출범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참석자들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엔지니어링업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였다.

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회장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노력을 강조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엔지니어링 역사관 건립, 계약 업무 효율화, 학경력 기술자 승급 제한 완화 등 엔지니어링 가치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엔지니어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엔지니어링 업계가 그간 부단한 노력을 통해 플랜트, 발전소, 도로·철도·항만 등 국가 기간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력산업의 고부가화에 크게 기여한 것에 감사를 표하였고, 50년 전 업체수 63개 사, 수주실적 21억 원에서 2022년 업체수 7천 7백여 개사, 수주실적 10조 원 규모에 이르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한데에는 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들의 기여가 크다고 격려하였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엔지니어링의 디지털화, 탄소중립에 따른 친환경 엔지니어링 성장 등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 구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정부 또한 업계가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 친환경·디지털 엔지니어링 연구개발(R&D) 및 인력양성 확대, ▲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체계 구축, ▲ 표준품셈, 기술경력자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책임자	과 장	이재석 (044-203-4340)
		담당자	사무관	박상원 (044-203-434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2024년 엔지니어링업계 신년인사회 행사 개요**

1.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4.1.16(화) 11:30~13:00 / **삼정호텔 1F 아도니스홀**

○ **배경**: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엔지니어링업계와 정부·유관기관의 화합의 장 마련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결속 다짐

○ **참석자**: 산업정책실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협회 임원·대의원, 유관기관 및 업계대표 등 150명 내외

○ **행사내용**: **신년 인사말씀, 떡케이크 커팅**, 오찬 등

○ **주최/후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산업통상자원부

2.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1:15~11:30	15분	사전환담	
11:30~11:32	2분	개회,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11:32~11:36	4분	신년사	협회장
11:36~11:40	4분	신년 인사말씀	산업정책실장
11:40~11:45	5분	신년 떡케익 커팅	산업정책실장, 내빈
11:45~11:50	5분	건배제의	주요인사
11:50~12:50	60분	오찬	
12:50~13:00	10분	기념촬영 및 폐회	